



2021년 12월 26일(제1068호) 예수, 미리아, 요셉의 생가정 축일(가정 성회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예수님의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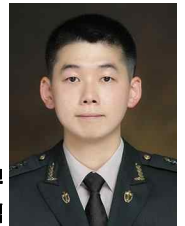
가족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자, 우리 가족여행 강원도, 설악산 가자!’ 근데 엄마는 제주도 가고 싶고, 아이는 에버랜드 가고 싶은데.... 맨날 아빠 가고 싶은 데로만 가면 - 맨날 설악산만 가면 - 어떨겠습니까? 아빠는 놀러 가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끌려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맨날 아빠 하고 싶은 데로만 하지 말고, 다른 가족들 생각도 좀 들어주면 훨씬 낫겠죠. ‘그래, 지난번에 강원도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제주도 한 번 가보자.’는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인데, 예수님의 가족 관계는 어땠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단순히 ‘당연히 다 예수님 말 들었겠지, 예수님 하느님이신데 다 휘어잡으셨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는 부모

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는 가족에게 양보와 경청의 자세를 선택하셨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 가족에게 지시와 명령을 더 선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느님의 ‘자세’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리’만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목청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귀청도 밝아야 합니다. 가족의 말에 순종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내 가족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 주,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우(베드로) 신부
비룡(25시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집회 3,2-6.12-14
- 회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제 2 독 시** 콜로 3,12-2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복 음** 루카 2,41-52
- 영 성 제 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두 번째 시한

현재를 위해서나 장래를 위해서나 이곳 형편을 위해서, 북방의 길을 열어 놓는 일이나 강남(江南)으로 출발할 일을 생각하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산더미처럼 많지만 병으로 허약해진 몸이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중에 무능해진 저는 다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저는 지금 14세 된 학생 두 명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 다른 아이 두 명을 지명하여 두었으나 아직 저에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병중에 있으나 가능한 대로 강남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은 금년에 매스트로 신부님과 토마스(즉 최양업 부제)를 영접하기 위하여 북방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중국 배나 서양 배 편으로 무엇을 조선에 보내는 것은, 그 배들이 오면 조정에서 도처에 군졸들을 배치하여 조선 사람들이 그 배에 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임을 신부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신부님께 조선 종이 20장이 들어 있는 봉투, 조선 그림 석 장이 들어 있는 작은 봉투, 병풍이라고 하는 여덟 폭으로 된 그림, 밤에 사용하는 낫그릇(낫요강), 신부님들의 유해, 누런 주머니 세 개, 조선 지도, 빗 세 개와 빗을 소제하는 기구, 붓을 쓸 때 붓 끝만 풀어서 쓰는 붓 네 자루, 돛자리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사부님께 가장 순명하는 불초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함께니까



혼자라면 못해,
어떻게 그 일을.

함께니까,
함께 가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혼자라면 못 가,
어떻게 그 길을.

혼자라면,
생각도 못해.

상화이야기

성가정



브론지노는 르네상스 후기 시대의 화가로, 피부색이 브론즈 빛(어둡다)이라는 뜻에서 브론지노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메디치 가문 및 피렌체의 유력 가문을 위해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브론지노의 작품들은 우아하고 또 차분한 아름다움이 특색이다.

본 그림은 성가정을 그린 그림으로, 맨 왼쪽에 세례자 요한(십자가를 들고 낙타털을 두르고 있다)이 성모님을 손가락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붉은색과 푸른색의 복의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과 다정한 모습을 취하고 계신다. 왼쪽에 요셉 성인이 옆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브론지노, 1555년~1560년 작
나무 위 템페라화, 117x99cm
모스크바 푸쉬킨 미술관

마치 한 가족의 초상화를 보는 듯, 개인적인 친밀함과 우아함이 가득 차 있는 그림이다.

비록 군인의 신분으로, 혹은 기타 사정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성가정 축일: 화성대 김경옥 신부

◆ 교구장 동정

- 독수리(1공수여단) 성당 성가정 축일 미사
 때: 12월 26일(주일)
- 국장회의
 때: 12월 28일(화) 16:00
- 종무식 미사
 때·곳: 12월 31일(금) 11:00, 군중교구청 1층 소성당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3)' 인니

- 업로드 플랫폼: 네이버 오디오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